장애인포교 무관심 여전… 개인 원력에만 의존

장애인구 고령화 가속화
젊은 장애불자는 극소수
불자규모 데이터도 없어
시대변화 따른 전략 부재
낮은 사찰 접근성도 문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관심이나 노력, 포교전략 수준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전히 일부 개인의 원력에 의존도가 높죠."

"지역마다 장애인을 향한 기독교계 선교는 워낙 적극적인 데 비해, 불교계는 관심도 적고 각 단체들의 사정도 여의치 않죠. 장애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20년 뒤 장애인불자의 존재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교계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포교'는 사실상 3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포교의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제기될 뿐 정작 장애인불자 수나 장애인불자단체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맞는 포교전략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장애인불자단체 활동의 쇠퇴, 그리고 신규장애인불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각 단체의 구심점으로 활동했던 회원들 대부분이 이미 고령인 반면, 젊은 회원들의 유입이 줄면서 자연히 활동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단체 간 연대도 점차 느슨해지면서, 공동의 포교전략을 고민하기보다 개별 단체 운영과 회원 관리 등에 매몰되면서 점조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대와 조직화를 통한 포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별 단체들이 연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발전은 물론, 자연히 구심점 및 컨트롤타워로 이어져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 토대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장애인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장애인전법단이 출범하면서 기대가 모이기도 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장애인복지 분야 위주로 구성돼 있고 예산도 부족해 성과는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8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장애인 불자 대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장애인포교 자체가 원력을 가진 일부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린이 포교나 청소년 · 대학생 · 청년 등 계층포교의 경우, 조계종 포교원이나 대표적인 포교단체를 중심으로 포교전략 마련 및 연구가 이뤄지는 반면, 장애인 포교는 여전히 소수의 특정인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에 가깝다.

이승배 장애인전법단 과장(영주장애인복지관 부장)은 "대표적인 예가 보리수아래의 최명숙 회장과 광림사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등이다. 이분들이 활동을 중단할 경우 단체가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장애인불자단체들 역시 회장 혹은 실무자의 원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장애인포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일선사찰과 종단, 스님들의 여전한 무관심과 인식부족이다. 장애인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신행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회에 참여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대다수 사찰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낮아 방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해성 스님은 "사찰의 경우 문화재 사찰이거나 전통사찰이어서 편의시설 마련이 힘든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지 스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도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편견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형편의 장애인불자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을 '장애인 포교'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장애인 포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가정책상 복지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포교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젊은 장애인들을 불자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아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컨텐츠 개발을 통해 불교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문화사업단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콜라보 눈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2020사찰음식 주간'을 맞아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와 연계해 11월 30일 온라인 사찰음식 조리법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정관 스님이 강의와 요리를 진행하면, 글로벌 여행문화 플랫폼인 'Culture Trip(컬처 트립)'을 통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완료한 온라인 시청자들이 이를 보며 요리를 따라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연근 견과류 조림, 감자전 조리법을 시연했다.

이번 영상은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이후 사찰음식 주간 웹사이트에 강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통해 한국의 사찰음식을 친숙하게 소개하려고 했다"며 "조리법뿐 아니라 사찰음식이 지닌 수행의 정신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불교문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소외이웃 따뜻한 겨울나기 도와요"

청계사, 자비나눔 행사
천태종 · 맑고향기롭게도
이주민 등에 김장 나눔

매년 겨울 소외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불교계 나눔 행렬이 올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불자들의 자비온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층 더 소외된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이주민가정 등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1월 25일 '2020년 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력을 통해 4000여 포기 김장을 담아 의왕시청계동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의왕노인지회, 의왕시립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녹향원, 야탑동과 정자2동 성남독거어르신, 안양교도소 등에 이웃돕기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 천태종 사회부장)는 11월 21일~11월 24일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이주민공동체와 고려인단체 등을 방문해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물품은 관문사(주지 월장)에서 후원한 김장김치 3kg 250박스를 비롯해 쌀 250kg, 달력 1000부, 고구마 100kg, 의류 1000점 상당이다. 또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 마스크 3000개 등 코로나19 예방물품과 초콜렛 등도 함께 전달됐다.


12월 1일 탑골공원에서 원경 스님(사진 오른쪽)이 어르신들에게 점퍼를 나눠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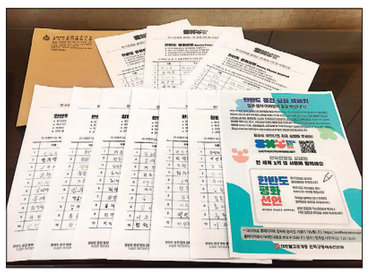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도 11월 26일 23개 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쪽방촌 거주민 460세대에 자비의 김장을 나눴다. 김장김치 나눔은 맑고향기롭게가 매주 진행해 온 반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올해 김장나눔은 예년과 달리 자매결연 업체를 통해 납품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원각사(주지 원경)가 운영하는 노인무료급식소는 12월 1일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겨울 점퍼 300장을 전달했다. 이날 나눠진 겨울 점퍼는 서울대 병원에서 200장, 법무법인 세종에서 100장을 후원받은 것이다.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는 2018년 점퍼 200장으로 나눔행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에는 400장을 후원받아 전달했다.

이밖에도 천안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과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구립대조노인복지관(관장 이동열)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도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을 이어갔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불교계도 한반도 평화캠페인 '속속' 동참

세무사불자회 등 서명 전달
단체의 동참으로는 첫 사례


청도 운문사에서 등기로 온 서명용지.
사진제공=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적인 서명운동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관련,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던 불교계에도 속속 동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해당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명예대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최근 세무사불자회와 청도 운문사를 통해 150여 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캠페인이 발족한 이후 불교계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차원의 동참을 제외하면 단체 연명은 이례적이다.

민추본에 따르면 세무사불자회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남창현 회장이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민추본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으며, 청도 운문사는 대중 스님들과 신도 100여 명이 연명한 서명용지를 모아 등기로 발송했다. 특히 운문사는 사찰 차원에서 캠페인에 동참한 첫 사례다.

민추본 관계자는 "그동안 불교계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행 중인 이번 캠페인에는 사실 동참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남북 정전협정 70년인 2023년까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전세계 1억 명의 서명과 지지선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올 7월 출범했다. 지난 9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종교평화회(KCRP)의 대표의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7대 종교계 수장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캠페인 동참을 호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추본은 11월 19일 전국 주요사찰과 포교 · 신행단체 등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홍보리플렛과 서명용지,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 등을 발송했다. 단체와 개인 등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720-0531 송지희 기자

종각과 범종 불사 권선문

현광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가람의 법화도량으로 법화행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법화경 광선 유포를 위해 신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불자님들께 현광사의 법화도량에 종각과 범종을 불사하고자 권선하오니 많은 불자님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이 바랍니다.
특히 법화도량의 범종소리는 법화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을 청정하게 하며, 지옥 중생과 유주무주 고혼들과, 천상계의 사람들이 제도 되고,
불사의 공덕은 생전에 바라는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동참 불자는 성불의 길에 들 것입니다.
종각과 대 범종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이 발원하오며, 불자님의 개개인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사 접수안내

종각불사금 대들보 : 1인 2백만원, 기둥 : 1인 100만원
서까래 : 1인 5십만원, 기타 : 1인 1십만원

대범종 범종상단(생년월일, 성명 새겨드림) : 1인 2백만원
범종중단(생년, 성명 새겨드림) : 1인 1백만원
범종하단(성명 새겨드림) : 1인 2십만원

상담전화 : 054-773-6605, 773-6607
계좌번호 : 농협 351-1121-8793-23 현광사
주 소 : 경주시 내남면 내외로 1130-14(현광사), 울산시 남구 거마로 86(현광사)
불사기간 : 2020년 12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준공 회향법회 예정일 : 2021년 10월 말일경 사전에 공지함

재단법인 불교교단 실상연화종 현광사 주지 동광 합장